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 만민중앙소식

이 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news.manmin.or.kr  
등록번호 : 다-1840(1989. 7. 12.)  
편집처 및 발행소 : 만민중앙성결교회  
발행인 : 이재록  
인쇄인 : 김신경  
편집인 : 빈금선  
서울 구로구 구로동 851번지 ☎02-818-7000  
e-mail : manminnews@hotmail.com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띤 만민중앙성결교회

제376호(구396호) 2008. 10. 26.(격주간)



## 개국 3주년 기념행사 열려

방송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세계에 전하는 GCN(세계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 개국 3주년 기념행사가 10월 12일, 본당에서 약 30개국의 국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오프닝, VIP 및 내빈 소개, 네스토 콜롬보 목사(GCN 대표이사)의 경과보고, 이재록 목사(GCN 이사장)의 기념사, 축사, 케이크 커팅, '2008년 GCN을 빛낸 프로그램' 방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GCN은 이재록 목사의 생명력 넘치는 말씀과 권능, 기사와 표적, 수준 높은 기독교 문화 등을 담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공중파, 위성, 케이블,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세계 만민에게 전파하고 있다.



## 만민 TV, '코이콤 총회 및 전시회' 참가 스페인어권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 확장

만민 TV(사장 이정호 장로)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파나마에서 개최된 '2008 코이콤(스페인어권 기독교방송인협회) 총회 및 전시회'에 참가했다.

20여 개국, 약 500여 개 방송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총회에서 만민 TV는 이재록 목사의 국내외 사역과 만민 TV 소개가 담긴 '권능' 프로그램을 상영했다. 만민 TV 부스에서는 다양한 제작 프로그램을 상영하고 스페인어판 만민중앙소식과 이재록 목사 저서들을 진열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중남미 최대의 기독교방송인 엔라세 TV 시청자들이 부스를 방문해 설교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았다며 감사해 하였다.

만민 TV는 미국, 멕시코 등 8개국 TV 방송사와 프로그램 방송 협의, 파나마 등 3개국의 9개 라디오 방송사와 이재록 목사 설교 프로그램 방송을 협의했다. 또한 향후 스페인어 TV, 라디오 프로그램의 지속적 제작 공급 확대 및 중남미 방송사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방송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                                |                           |                               |
|--|--------------------------------|---------------------------|-------------------------------|
| 주일 대예배                                 | 1부 · 오전 10:00<br>2부 · 오전 11:30 |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비율·마리아] | 오후 8:00                       |
| [빛과소금선교회 오후 9:00]<br>[요식업선교회 오후 11:00] | 수요찬양예배 [빛소금]                   | 오후 9:00                   |                               |
|  |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 오후 4:00                   |                               |
|  |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 오후 3:00                   |                               |
| 주일저녁예배                                 | 오후 3:00                        |                           |                               |
| 금요철야예배                                 | 오후 11:00                       | 아동주일학교 주일예배               | 1부 · 오전 9:00<br>2부 · 오전 11:40 |
| 수요예배                                   | 오후 7:00                        |                           |                               |
| 새벽예배                                   | 새벽 5:00                        | 저녁 · 오후 1:30              |                               |

### 교회 약도



- 시내버스: 5536, 5615번 (교회 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오거리 하차)
-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국 ☎ 02-818-7391~5)

## 하나님의 권능 사례 모음 '희한한 능' 발간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 사례를 모아 엮은 『희한한 능』이 다양한 화보와 함께 올 칼라로 10월 12일 발간 되었다.

'이것도 가능할까' 하는 20개국 70명의 놀랍고 흥미진진한 일화를 통해 참 믿음을 갖기 어려운 이 세대에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북스리브로 등 시중 대형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우림북 (02)837-7632

## 칼럼 Column 놀라운 사랑

7년 동안 병고에 시달리며 고통받던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니 건강, 물질, 자녀의 축복, 권능 등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부어 주셨지요. 3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맞지 않으면 쉽게 그 사랑이 변하고 떠나는 일이 허다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그 품을 떠났다 해도 돌아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지요.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그 품에 안아 주시고 새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글 · 이재록 목사  
동아일보 연재 '실로암' 칼럼에서

### 만민중앙소식을 받아보시려면

- 이 소식을 받아 보기 원하시는 분은 먼저 전화로 구독신청하신 후 우송료를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우 송 료 : 1년분 5,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 구독신청 : 02-851-3845, 070-8240-5609
- 온라인 번호 [예금주: 위성영]
- 국민은행 362-21-0201-106
- 우리은행 072-255732-02-201
- 농협 100072-52-061722
- 우체국 012419-02-047269



### 당회장 이재록 목사

# 부득불 할 일 전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고린도전서 9:16)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내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허름한 샌들을 신고, 건조한 사막 기후의 이스라엘 곳곳을 걸어 다니셨기 때문에 그 발에는 늘 모래와 먼지가 묻어 있었고 때론 붓기도 했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셨습니다. 이는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자녀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16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했습니다. ‘부득불(不得不) 할 일’이란 ‘아니할 수 없는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뜻합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전도가 부득불 할 일일까요?

#### 1) 주님께서 하신 지극히 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증인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18-20에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6:15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사도행전 1:8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주님이 내린 지상 명령이며,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으로서 믿는 자의 기본적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성령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도리를 아는 자녀는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반드시 지킵니다. 물론 주

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전도이니만큼 그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도리를 좇아서라도 전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할 것을 말씀하면서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5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과 주를 믿은 사람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뒤, 날마다 모여 기도회 힘썼고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이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사람이 되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 아들로써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지요. 이처럼 성령받기 이전과 이후는 모든 것이 확고하게 바뀝니다.

마가복음 16:20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통해 말씀을 확증하는 표적이 많이 나타났지요. 주님이 함께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이 명한 전도를 순종하여 행한다면 반드시 성령은 도와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적절한 전도 방법을 알려줍니다. 또한 질병이나 가정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사랑의 중보 기도가 때에 맞게 응답되어 전도 대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 2)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아 지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아 지옥에 갔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전도했는데도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면 전도자로서의 책임은 다한 것입니다(겔 33:1-6).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비록 죄악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해도 그들이 회개해 구원받길 원하지 그대로 사망에 이르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

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자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음이 생겨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롬 10:14).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해 지옥에 간다면 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책임이 큰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4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말합니다. 그는 주님께 받은 죄 사함의 은총과 사랑으로 인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다면 마치 그것이 자신의 탓인양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한다는 애절한 심정으로 날마다 쉬 없이 복음을 외쳤지요. 어떤 시련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온통 영혼을 구원할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입에서는 찬미가 흘러 나왔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찬미는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의 권속이 복음화되어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지요.

다니엘 12:3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했고, 누가복음 15:7에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했습니다. 이는 영혼 구원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큰 상급인지 알 수 있습니다.

#### 3)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받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27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단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반드시 천국, 지옥의 두 갈래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

만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영벌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해 죽은 뒤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뒤에 아래 음부에서 고통받지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지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라도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 주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임한 뒤, 백보좌 대심판을 받기 전까지 아래 음부에서 이같은 고통을 받아야 하며, 백보좌 대심판에 의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을 때에는 말로 상상할 수 없는 더한 고통을 받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끝이 없으며, 영원히 계속되지요.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며 천국과 지옥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부모, 형제, 자식, 이웃, 친구, 일가친척에게 어찌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6:27, 28에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했습니다. 아래 음부에 떨어져 고통받는 부자는 형제들을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는 못 영혼에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 계신 증거를 알려서 그 증거를 보고라도 믿음을 가져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어느 날 어느 곳에서 대형 참사가 있는 것을 안다면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을 그날 그곳에 가게 하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참으로 가까운 이때,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자신없는 당신을 위한 전도전략

# 결코 어렵지 않은 행복한 전도가이드

‘사는 게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다’,  
 ‘전도하고 싶어도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성격상 먼저 말 거는 게 어렵다’... 전도는 진정 어려운 것일까?  
 똑딱똑딱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시계추는 열심히 달음질치는데,  
 신앙인으로서 당신은 과연 몇 점?  
 몇 장 남지 않은 달력을 넘겨 보며  
 긴 한숨이 새어나오는 것은 아닌지.  
 지금 당신에게 신앙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전도’를 권한다. 결코 어렵지 않은 전도,  
 그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 ^^ 내가 하지 말아라

전도가 어려운 것은 내 힘으로 해 보겠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러하듯, 전도 역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불같이 기도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전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 문을 열게 하신다.

또한 믿지 않던 한 영혼이 교회에 등록하기까지에는 원수 마귀 사단의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도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함으로써 주변의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쳐 주어야 한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때로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 일방통행이 아니다

전도는 상대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전도대상자에게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주입식으로 전도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는 식으로 질문해 대답할 수 있도록 하면 상대의 반응을 이끌어 내기 쉽다.

또한 교회의 특별한 행사에 참석케 한 다든지, 설교 테이프나 믿음을 심어줄 책자를 권한다든지, 꾸준히 교회 신문을 전한다든지 하여 먼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 평안한 때에 대화를 유도해 거부감 없이 복음을 받아들 이도록 이끌어 가면 효과적이다.

#### ^^ 말씀 실천의 길이다

사랑과 관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림 • 김현경

#### ^^ 실제 경험이 통한다

이 밖에도 제삼자의 간증을 전하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 역사를 전할 때 사실을 입증하기가 쉬워 더 효과적이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는 교회와 목사님 사랑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역사와 목사님이 전하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 외, 전도의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 즉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물질로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는지 등 상대의 관심사에 접근해 영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다.

끝으로, 전도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많은 영혼을 전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다. 이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함을 잊지 말자.

내야 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험뵈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약 2:15, 16)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운 사랑과 희생을 실제 행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전도이다. 마음을 굳게 닫은 사람이라 해도 사랑의 행함 앞에서는 결국, 마음의 빗장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 나는 왜 전도가 어려울까?

#### 전도가 어려운 당신을 위한 tip

- ♥ 항상 기도하라
- ♥ 진심으로 사랑하라
- ♥ 미소 짓는 얼굴로 인사하라
- ♥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라
- ♥ 이름과 직업, 취향을 기억하라
- ♥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라
- ♥ 맛있는 음식은 나눠라
- ♥ 전도지나 책자 등 자료를 활용하라
- ♥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를 놓치지 말라
- ♥ 본이 되는 삶을 살라

### 송이희 집사의 ‘삶으로 전도하기’



송이희 집사는 국제청에 재직 중이며 하나님 은혜에 빛난 자로서 그에 게 전도는 삶 자체이다.

우리 교회에 처음 전도되었을 때, 당회장님 기도로 앓고 있던 B형 간염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체험한 저는 진솔하게 제 간증을 전했고 일가친척이 하나둘 전도되었지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기까지에는 기도는 물론이고 평소 눈에 보이는 섬김을 쌓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심었을 때 심령이 가난해지면 전도대상자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게 되지요.

다니엘 철야기도회가 끝난 뒤나 휴무인 토요일을 이용해 음식점을 찾아가 당회장님 저서나 교회 신문을 전했고, 최근에는 방문이 쉬운 상가를 찾아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한 사람은 정착을 잘하지만 체험이 없는 사람은 정착률이 낮아 고민하던 저는 말씀 무장과 함께 먼저는 주님의 마음을 닦아 영혼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다가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짝을 이뤄 전도할 동역자와 전도 훈련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었지요. 전도는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한 본분이지만 하면 할수록 전도자의 신앙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렵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은혜’ 이고 ‘삶’ 인 것입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을 이용한 동시 화상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51)805-1363, 010-5335-5424</li> <li>●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2동 1323-12 ☎051)326-1537, 010-5521-2073</li> <li>●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2018-8410</li> <li>●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53)783-3017, 010-7112-3017</li> <li>●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li> <li>●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062)513-2455, 011-387-0263</li> <li>●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062)372-1002, 011-601-1070</li> <li>●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1-2 ☎062)266-7001, 011-637-6443</li> <li>●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li> <li>●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6-505-1537</li> <li>●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6-278-7712</li> <li>●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6-447-7077</li> <li>●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li> <li>●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집흥동 564-15 ☎041)667-4721, 018-618-6194</li> <li>●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li> <li>●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173-11 ☎043)283-5004, 010-9271-7017</li> <li>●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랑동 956 ☎016-215-0116, 010-4155-588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li> <li>●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626-1</li> <li>●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li> <li>●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리리 301-5</li> <li>●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li> <li>●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li> <li>●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li> <li>●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li> <li>●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2동 47-5</li> <li>●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192-3</li> <li>●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대동 742-4</li> <li>●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li> <li>●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li> <li>●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153</li> <li>●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2가 929-1</li> <li>●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동 250-3</li> <li>●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43)845-0617, 019-278-0641</li> <li>☎055)247-8891~2, 010-8947-5989</li> <li>☎055)353-9192, 011-745-2119</li> <li>☎055)852-5815, 010-2536-2515</li> <li>☎055)322-7055, 018-605-2254</li> <li>☎055)289-9522, 011-9331-4405</li> <li>☎055)648-9107, 011-214-8891</li> <li>☎054)748-5777, 010-3747-5777</li> <li>☎054)281-9367, 010-8433-2073</li> <li>☎054)281-2468, 010-7940-9367</li> <li>☎054)464-4512, 016-539-1537</li> <li>☎061)652-8311, 011-602-9522</li> <li>☎061)284-3133, 010-2629-8275</li> <li>☎061)452-7443, 011-608-3037</li> <li>☎063)223-9991, 018-202-1537</li> <li>☎063)853-0675, 011-671-7191</li> <li>☎033)251-1144, 010-7770-2073</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li> <li>●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li> <li>●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li> <li>● 제주만민교회 제주도 연동 2307-5</li> <li>●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li> <li>●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88-26</li> <li>●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li> <li>●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li> <li>● 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li> <li>●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갈매동 367-4</li> <li>●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li> <li>●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li> <li>●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48-5</li> <li>●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2</li> <li>●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158-5</li> <li>●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동 465-4</li> <li>●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33)766-1535, 010-9108-2073</li> <li>☎033)637-0271, 010-7733-3731</li> <li>☎033)641-3790, 017-334-7750</li> <li>☎064)745-0675, 010-2468-2251</li> <li>☎02)556-8517~8, 019-234-3719</li> <li>☎02)995-9951, 011-1717-1217, 011-719-2073</li> <li>☎031)485-9143, 017-366-5914</li> <li>☎032)863-9857, 011-287-7369</li> <li>☎032)569-3835, 010-7720-7770</li> <li>☎031)781-9830, 017-355-1928</li> <li>☎031)905-2419, 019-276-1014</li> <li>☎031)552-7397, 010-2290-1856</li> <li>☎02)489-3766, 010-6712-2073</li> <li>☎032)528-3830, 010-7720-7770</li> <li>☎031)202-8480, 010-2213-2073</li> <li>☎031)635-9103, 016-718-7458</li> <li>☎031)840-2906, 019-251-3149</li> </ul> |
|--|--|---|--|---|

# 26TH

## 교회 창립 26주년,

# 그 감동의 현장에 함께한 사람들



지난 10월 12일, 우리 교회에는 창립 26주년을 맞이하여 국내는 물론, 미국, 프랑스, 러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약 30개국에서 참석한 130여 명의 교계, 정계, 언론계, GCN(세계 기독교방송 네트워크), WCDN(세계 기독교사 네트워크) 인사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대예배 후, 성도들은 야외에 준비된 먹거리를 함께 나눴고, 저녁예배에는 창립 26주년 및 GCN 개국 3주년 기념예배와 행사, 축하공연을 치렀다. 이날 행사는 인터넷과 위성, 케이블방송 등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해외 인사들은 대부분 '만민' 과의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로 질병이 치료되고 자신뿐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고 변화되고 있다고 간증한다.

인도 첸나이에서 성결의 복음을 뜨겁게 전하는 에벤에셀 장로, 영적 체험으로써 페루 부흥에 힘쓰는 리카르도 추랑고 목사, 방송 선교 사역에 큰 비전을 가진 이고르 니키티ن 사장, 세 사람에게서 '만민'의 세계 선교 사역을 되새겨 본다.

### “힌두교인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성결의 복음과 권능입니다”

첼리아 에벤에셀 (인도 그린필드 엔지니어링 워크 회사 대표이사)



대대로 주님을 믿는 신실한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난 저는 7년 전만 해도 참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10월, '이재록 목사 초청 인도 연합 대성회'에서 제 인생은 새롭게 거듭났고,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지요. 연인원 3백만 명이 모인 마리아 해변에 권능의 대폭발이 일어나 강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느끼며 온몸에 흐르던 전율과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참임을 확실히 전하는 이 성결의 복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목회자와 크리스천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 연합 대성회 후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선교 활동의 제약이 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한청회 선교사와 함께 만민 미니스트리 인디아(Manmin Ministries India)라는 종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첸나이 만민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적 부분을 돕고 있지요. 최근에는 제가 회장을 맡은 실업인 선교회 주관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해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 형태의 모임과 세미나를 주관해 개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영육간에 축복을 받아 72세의 나이에도 강건하며, 운영하는 일터에도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도 사람이 2002년 인도 연합 대성회에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목도한 뒤 이재록 목사님과 만민의 사역을 사모합니다. 교회 창립 26주년을 맞아 평소에 친분 있는 목회자 및 교계 인사들과 함께 만민중앙교회에 방문한 저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섬김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갑니다. 지금의 만민중앙교회를 있게 한 것은 성결의 복음과 권능이며, 힌두교의 나라 인도를 깨울 수 있는 것도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 “기적을 체험한 제게 하나님은 더욱 밝은 영의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빅토르 리카르도 추랑고 (페루 까라바이요 목회자협의회 회장)



10년 전, 하나님은 제게 교회 개척을 주관 하셨습니다. 그때 아내는 반대했지요. 그 뒤, 저희 부부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횡사했고, 아내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내를 살려주셨지요. 이를 계기로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목회자를 만나기란 쉽지 않았습니. 그런데 2004년, 저희의 체험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전하는 만민의 사역을 알게 되자 매우 반가웠습니다.

2004년 12월, 페루 리마에서 이재록 목사 초청 연합 대성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성회를 도울지 말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원형 무지개를 보여 주셨고, 저는 하나님 뜻임을 확신했지요. 또한 성회 전, 아내 꿈에 이재록 목사님이 나타나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고, 후에 이재록 목사님인 것을 알았죠. 그래서 더 확신을 갖고 성회를 자원해 도울 수 있었습니다. 성회를 마치고 저희는 400여 명의 성도가 800여 명으로 배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결의 복음으로써 더욱 더 변화되고 능력받기 위해 저는 페루 선교센터에서 받은 이재록 목사님의 책들과 세미나 자료를 토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라세 방송에서도 설교를 듣고 있고요.

4년 동안 기도하며 꿈꿔 오던 만민중앙교회에 온 저희 부부는 모든 일정을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동 속에 보냈습니다. 무안 단물터에 방문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수많은 천사와 무지개를 보았고, 제 아내는 단물에 침수하는 순간 허리 통증이 사라졌지요. 이곳까지 인도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쓰이는 도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방송을 통해 세계 만민이 주님의 품에 인도되길 원합니다”

이고르 니키티 (TBN Russia, RBN Rodnoy 사장)



저는 대학생 때, 해외에서 온 분에게 의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에게 받은 작은 영어 성경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제가 '만민'을 처음 안 것은 2003년 이재록 목사님의 연합 대성회입니다. 위성, 공중파, 케이블 TV, 인터넷으로 전 세계 144개국에 생중계되었고, 성회를 시청한 사람들의 간증이 곳곳에서 접수되었지요. 그 뒤, 러시아에 많은 변화와 영적 축복이 임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성결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그것이 응답과 축복의 지름길임을 알았지요.

저는 위성방송으로 미국, 러시아, 유럽, 중동에 러시아어로 GCN(세계 기독교방송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방송합니다.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는 전 세계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지요. 특히 이스라엘과 회교 국가, 그리고 미국에서 온 시청 소감이 이메일 웹사이트 전화와 편지로 하루에도 수천 건씩 접수됩니다. 그리스의 한 여성은 남편과 사별 후 외로움 탓에 자살까지 시도했지만 이재록 목사님의 프로그램을 시청한 뒤,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며 십일조를 보내왔습니다. 중앙아시아 여성은 이재록 목사님께서 눈먼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시력을 회복하였다며 기뻐 소리쳤고, 난생 처음으로 안경 없이 성경을 읽게 된 한 여성은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 다양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지요.

전 세계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아낌없이 지원하시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며, 방송으로나마 세계 만민이 주님의 품으로 인도되길 원합니다.